

III. 디자인관련 정책 현황 및 주요 이슈

1. 디자인관련 기업육성 및 R&D 투자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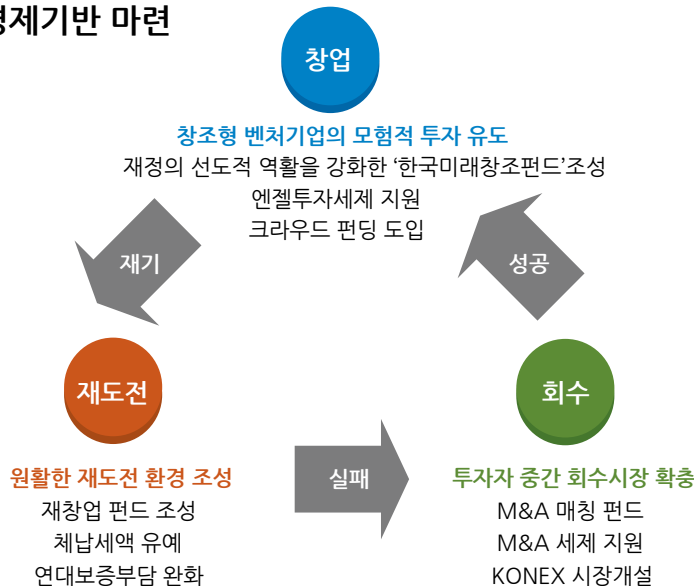
'창조형 서비스업' 제조업수준으로 지원 강화

-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'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'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,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.
 - 창조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(SW), 영화, 게임, 관광, 컨설팅, 보건의료, 마이스산업(MICE) 등과 이들이 융·복합된 업종이 포함된다.
- 창조형 서비스업 지원 방안

R&D 예산	R&D 예산 16조 9000억원 중 서비스 R&D에 1000억원(0.5%) 배정, 내년 1%로 확대
R&D 비용 세액공제	R&D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추가
조세특례제도	고용창출투자,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업종별 조세특례 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추가
수출금융	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상품수출과 동일한 금융지원

- 창조경제의 중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- 한국미래창조펀드 시범 조성

창조경제기반 마련



참고 : R&D 예산에 각종 세제지원, 수출금융까지 전폭지원, 머니투데이, 김지산 기자 2013.03.28.

- 정부는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.

- 펀드에 크라우드 펀딩 개념 도입과 엔젤투자 세제 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.

KIDP, 창조경제시대 K-Design 브랜드 확산 추진 계획 마련

- 디자인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

-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(UNCTAD)에서 정의한 ‘창조산업’은, 다양한 분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광범위한 범위로,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통문화, 예술 영역과 광고, 출판, 미디어 등 시장영역의 4개의 범위(문화유산, 예술, 미디어, 실용적 창작품)로 구분된다.

- 90년대 후반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,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지원, 육성하고 있다.

- 현재 유럽, 미국, 일본의 디자인산업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약하여 방향성을 잃은 상황인 반면, 한국은 정부가 디자인산업 R&D 투자와 인프라 확충, 디자인연계 중소기업육성 등 적극적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 선진국을 따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● 디자인 한류를 주도하기 위한 K-Design 브랜드 활성화 방안

창조경제시대 목표	-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류 디자인브랜드 위상 제고 - 창조형 서비스업 성장을 위한 디자인경쟁력 제고
예산 89.5% 증액	- 지난해 555억원→1010억원(89.5% 증액)
중소·중견기업 디자인R&D지원	- 중소·중견기업 디자인 R&D 인력 고용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 - 약 10개 기업에 10여명의 전문 디자인인력을 파견 - 해당인력 급여의 70%를 지원
글로벌 거점 마련	- 중국 베이징 KIDP China 유치 - 중국닝보디자인센터 내 K-DESIGN 우수디자인상품관 오픈
글로벌 전시·홍보 사업	- 100% 런던 디자인 한국관 개설 -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 차세대 K-Design 전시 - 상해 K-Design 포럼 2012 전시·홍보 - Design Korea 2012 중 한국디자인DNA 등 K-Design R&D 사업 전시·홍보
해외 디자인나눔 사업 확대 및 고도화	- 태국, 베트남, 필리핀, 말레이시아에 이어 인도네시아 혹은 캄보디아 한 곳 더 추가 예정 - 단순 정보교류에서 나아가 공동 R&D 개발 등으로 고도화

참고: 디자인진흥원 '올해 K-DESIGN 글로벌 확산 집중', 서울경제, 윤경환기자, 2013.03.07.

지자체의 글로벌디자인클러스터 육성 본격화

● 광주시 5대 신 특화산업으로 '디자인융합산업' 선정, 3년간 38억원 투입

- 광주디자인센터가 디자인 산업화와 국제화, 특화산업화를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추진, '지역 디자인의 국제화'는 올해 광주국제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와 함께 2015년 IDA 총회 준비, 영국 골드스미스대 등 해외 유명 대학·기관 등과 협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.
- 광주시가 그동안 디자인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지난 2000년 30여 개에 불과했던 지역 디자인 전문 회사는 163개로 늘어나고, 연평균 성장률도 5.0%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.

출처: 디자인 산업화·국제화·특화산업 광주디자인센터 올 3대과제 박차, 광주일보, 임동률기자, 2013.02.13.

●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설계 완성

- 지난해 광명시와 (주)이노디자인그룹, 사단법인 한국기업협력협회의 협약으로 경기도 광명시에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협약했다. 2016년 초까지 3740억원을 들여 KTX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1부지 내 3만 3000여㎡에 연면적 22만3996㎡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.
- (주)이노디자인그룹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고, 디자인 창업지원센터, 아카데미, 콜센터 등 설치, 사단법인 한국 기업협력협회도 이노디자인그룹과 협력해 로봇, 전기자동차, LED기업체 등을 유치하고 금형개발센터, 인쇄 출력센터 등 디자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협의하였다.
- 또한 디자인 전문대학원인 국제디자인학교를 건립하고, 광명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가학광산동굴 개발에도 참여해 디자인 기술력을 지원할 계획이다.

출처 :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설계 완성, 뉴시스, 이승호 기자, 2013.01.29.

- 구리 월드디자인시티, 미국 투자회사에서 5억 달러 투자 결정
 -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국제자문위원회(NIAB)를 통해 미국 HF캐피탈(Hickey Freihofner Capital)사는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밝혔다. 1차로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,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융자 형식의 투자를 할 예정이다.
 - 구리는 이미 수천 개의 기업과 외국자본이 유치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이다.

출처 :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탄력 美 투자회사 5억달러 투자, 경인일보, 이종우 기자

2. 디자인관련 법률 및 제도

디자인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'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및 대가 기준' 초안마련

- 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148개사의 67%가 모두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전체의 88%가 디자인개발 '프로젝트 전(프로젝트 공고 후부터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의 단계)' 제안서 및 PT 발표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다.
 - '프로젝트 중(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프로젝트 완료 이전까지)' 중도계약 해지 및 무리한 수정작업 요구 등에 대한 피해 경험이 72%, 다른 단계에 비해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 - '프로젝트 후(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)' 개발 결과물에 대한 불합리한 추가요구 피해 경험 또한 절반 이상이다.
 - 이 중 '프로젝트 후' 피해의 연평균 발생 횟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 조사 결과, 디자인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단가 기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다.
 - 디자인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'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및 대가 기준'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중이다.
 - 인건비, 직접경비, 일반관리비, 창작료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디자인용역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.
- 디자인공정거래가 정착화되면 디자인에 대한 시장 및 일반 수요자의 인식 그리고 K-Design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낳게 된다.

참고: 디자인진흥원 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, www.designdb.com, 2013.03.